<h1>나 혼자만 레벨업-33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s14ec07b121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3화</p>  
<p>단검에 온 신경을 쏟고 있던 강태식은 갑자기 발끝에서 밀려 올라오는 고통에 화들짝 놀라 급히 물러섰다.</p>  
<p>진우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[스킬 '질주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[이동 속도가 30% 증가합니다. 시전 중 1분당 마나가 1씩 감소합니다.]</p>  
<p>진우가 빠르게 따라붙었다.</p>  
<p>강태식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속도가 더 빨라지다니?'</p>  
<p>안 그래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던 진우가 한층 더 빨라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.</p>  
<p>순식간에 거리를 줄인 진우는 '카사카의 독니'로 강태식의 허벅지를 찍었다.</p>  
<p>"크악!"</p>  
<p>상체 방어에 집중하던 강태식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간 공격이었다.</p>  
<p>['효과: 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['효과: 출혈'이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체력이 1초에 1%씩 소모됩니다.]</p>  
<p>'좋아!'</p>  
<p>'카사카의 독니'의 추가 공격 효과가 들어갔다.</p>  
<p>마비가 아닌 게 아쉽지만 이것으로 싸움은 한결 더 쉬워졌다.</p>  
<p>하지만 강태식 또한 상급 헌터!</p>  
<p>저항이 만만치 않았다.</p>  
<p>그가 든 나이프가 진우를 노리고 날아들었다.</p>  
<p>휙, 휙.</p>  
<p>진우는 나이프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강태식의 급소들을 공격했다.</p>  
<p>강태식은 허벅지에 입은 상처로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노련한 헌터답게 진우의 공격을 차분히 막아 냈다.</p>  
<p>챙, 챙!</p>  
<p>진우와 강태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.</p>  
<p>'속도는 호각!'</p>  
<p>'속도는 같다!'</p>  
<p>두 사람 다 서로의 민첩한 움직임에 감탄하며 초근접 거리에서의 속도전을 이어 나갔다.</p>  
<p>단 한 번에 승부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살상력을 지닌 공격들이 무수히 오고 갔다.</p>  
<p>쉭, 쉭, 쉬익, 쉭, 쉭, 쉭, 쉭, 쉭!</p>  
<p>보는 사람들의 피가 절로 마를, 살벌한 공방전이었다.</p>  
<p>'균형을 깨야 한다.'</p>  
<p>진우가 눈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[스킬: '살기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진우와 눈이 마주친 강태식이 흠칫 몸을 떨었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['효과: 공포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모든 능력치가 1분간 50% 감소합니다.]</p>  
<p>'됐다!'</p>  
<p>진우는 승리를 확신했다.</p>  
<p>반면 강태식의 동공에는 지진이 일었다.</p>  
<p>'왜 몸이?'</p>  
<p>진우와 눈을 마주치고 난 뒤로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.</p>  
<p>자랑하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쉬익! 쉭!</p>  
<p>강태식의 몸에 상처가 하나씩 늘어갔다.</p>  
<p>'이, 이럴 수가!'</p>  
<p>강태식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.</p>  
<p>이건 분명 디버프 효과였다.</p>  
<p>암살 클래스가 디버프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'암살이 특기가 아니었나?'</p>  
<p>아니, 그렇다면 이 속도는 대체?</p>  
<p>그러나 강태식은 곧 생각을 멈추어야 했다.</p>  
<p>혼란은 경악으로 바뀌어 갔다.</p>  
<p>눈앞에서 진우가 깊숙이 쇄도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. 강태식은 황급히 진우의 눈을 노렸다.</p>  
<p>쉬익!</p>  
<p>진우가 급히 목을 뒤로 뺐지만 나이프에 뺨이 살짝 긁히고 말았다. 하지만 이 정도의 피해는 진우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.</p>  
<p>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약간의 위험은 감수해야 했다.</p>  
<p>강태식의 얼굴이 구겨졌다.</p>  
<p>'젠장.'</p>  
<p>강태식의 품속으로 들어온 진우가 '카사카의 독니'를 강태식의 가슴팍에 꽂았다.</p>  
<p>푹!</p>  
<p>"커억!"</p>  
<p>강태식이 눈을 번쩍 떴다.</p>  
<p>그 순간 두 사람 다 동시에 알 수 있었다.</p>  
<p>승부가 이것으로 결정 났음을.</p>  
<p>강태식의 입속에 시뻘건 핏물이 고였다.</p>  
<p>가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피였다.</p>  
<p>강태식은 피를 머금은 채 피식 웃었다.</p>  
<p>하필 이런 날에 D급 던전 따위에서 재각성 헌터를 만나게 되다니.</p>  
<p>'지지리 운도 없다니까, 정말.'</p>  
<p>강태식의 손에 들려 있던 나이프가 떨어졌다.</p>  
<p>숨을 헐떡이던 강태식은 고개를 기울여 진우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다.</p>  
<p>"..."</p>  
<p>묵묵히 듣고 있던 진우가 강태식의 가슴에서 단검을 빼냈다.</p>  
<p>강태식은 옷걸이에서 흘러내린 옷처럼 힘없이 아래로 무너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띠링!</p>  
<p>['긴급 퀘스트: 적을 처치하라'를 완료하셨습니다.]</p>  
<p>메시지가 떴지만 진우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.</p>  
<p>역시 몬스터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건 뒷맛이 쓰다.</p>  
<p>비록 상대가 먼저 걸어온 싸움이라도 말이다.</p>  
<p>[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그나마 보상이라도 없었으면 완전히 밑지는 장사였겠지.</p>  
<p>진우는 그렇게 위로하며 보상을 확인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아래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보상 1. 능력치 포인트 +5</p>  
<p>'어라?'</p>  
<p>진우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황동석 일당을 처치했을 때보다 보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다.</p>  
<p>'난이도는 이쪽이 훨씬 높았는데?'</p>  
<p>상대의 실력과 상관없이 머릿수가 중요하다는 건가?</p>  
<p>아니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했던 걸까?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, 문득 아래로 향했던 진우의 시선에 무언가가 들어왔다.</p>  
<p>죽은 강태식의 몸에서 동전만 한 크기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'설마...?'</p>  
<p>믿기지 않았지만 그 반짝거림은 몬스터가 가진 아이템에서 나오는 빛과 같았다.</p>  
<p>이 빛을 마수에게서 발견했을 때는 마정석이 나왔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, 빛은 죽은 강태식에게서 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'뭘까?'</p>  
<p>진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빛이 새어 나오는 강태식의 심장 부근을 향해 손을 뻗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역시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[룬석: 은신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'룬석? 룬석이라면...!'</p>  
<p>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강태식이 썼던 스킬이 룬석이 되어 강태식의 몸에 남아 있었다.</p>  
<p>은신은 극소수의 헌터만이 쓸 수 있는 진귀한 스킬이었다. 이게 만약 알고 있는 의미 그대로의 '룬석'을 뜻하는 거라면...</p>  
<p>'획득.'</p>  
<p>손안에 룬 문자가 적힌 작은 돌 하나가 들어왔다.</p>  
<p>[룬석: 은신]</p>  
<p>룬석을 부수면 스킬이 흡수됩니다.</p>  
<p>돌을 부숴 스킬을 흡수한다.</p>  
<p>의미 그대로의 룬석이 확실했다.</p>  
<p>이걸 부수면 은신을 쓸 수 있게 되는 거다.</p>  
<p>아직 은신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룬석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어 보지 못했다.</p>  
<p>그러니 이 룬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.</p>  
<p>그때 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"성 씨, 괜찮나?"</p>  
<p>"진우 씨!"</p>  
<p>진우는 룬석을 주머니 안에 숨기며 돌아섰다.</p>  
<p>송치열과 이주희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.</p>  
<p>불과 얼마 전까지 D급 던전에서도 빌빌대던 E급 헌터 진우가 B급 헌터인 강태식을 이겼으니까 말이다.</p>  
<p>비전투계열인 이주희는 몰라도 C급인 송치열은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자기 몸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"예, 괜찮습니다."</p>  
<p>일단 눈으로 보기엔 멀쩡했다.</p>  
<p>딱히 아픈 데도 없었고.</p>  
<p>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순간 턱에 고여 있던 피가 후드득 흘러내렸다. 무심결에 뺨을 만졌더니 아까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.</p>  
<p>"아."</p>  
<p>"치료해 줄게요."</p>  
<p>주희 손끝에 잠깐 푸른빛이 맴돌더니 그 작은 상처마저 사라졌다.</p>  
<p>B급 헌터를 E급 혼자 큰 상처 없이 이긴 것이다.</p>  
<p>진우를 아는 두 사람에겐 방금 전 B급 헌터가 자신들을 죽이려 들었던 것보다, 진우가 그를 이긴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.</p>  
<p>"자네가 어떻게..."</p>  
<p>송치열이 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진우도 송치열이나 주희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알고 있었다.</p>  
<p>그래서 먼저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. 언젠가 때가 오면 다 말씀드릴 테니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."</p>  
<p>진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부탁하자 주희가 끄덕끄덕 고개를 움직였다.</p>  
<p>송치열도 곧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자네가 그리 말한다면 이유가 있겠지. 알겠네."</p>  
<p>진우는 문득 보스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일이 꼬이긴 했지만 보스를 잡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었다.</p>  
<p>보스는 되도록 혼자서 잡고 싶었다.</p>  
<p>또 두 사람이 없어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기도 했다.</p>  
<p>진우가 송치열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레이드를 계속하는 건 무리겠죠. 일단 두 분은 나가서 협회에 연락해 주세요. 저는 여기 남아서 생존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"</p>  
<p>송치열은 직감적으로 진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챘다.</p>  
<p>'게이트를 닫아 버리려는 게야.'</p>  
<p>송치열의 생각에도 그 편이 가장 뒷말이 나오지 않을 듯했다.</p>  
<p>"그게 좋겠구먼. 주희 양, 우리는 나가지."</p>  
<p>송치열의 권유에 주희가 멈칫거리더니 진우에게 달려왔다.</p>  
<p>"같이 저녁 먹기로 약속했던 거 잊지 않았죠?"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"못 잊죠. 아직 거스름돈도 못 받았는데."</p>  
<p>"그럼 약속 꼭 지켜요. 밖에서 기다릴 거니까."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희는 그제야 안심한 듯 물러났다.</p>  
<p>던전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주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. 진우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후우."</p>  
<p>최대한 오래 숨기고 싶었는데. 결국 들키고 말았다.</p>  
<p>목격자가 두 사람이나 생겼으니 이제는 발뺌할 수도 없었다.</p>  
<p>'그렇다고 주희나 송 씨 아저씨를 협박하고 싶지도 않고.'</p>  
<p>B급 헌터를 처치한 건 아마 정당방위가 될 것이다.</p>  
<p>증인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 점은 문제없다.</p>  
<p>문제는 E급 헌터가 어떻게 B급 헌터를 이겼느냐 하는 것이었다.</p>  
<p>'재각성 헌터가 제일 설득력이 있겠지.'</p>  
<p>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</p>  
<p>재각성 헌터라고 밝히고 등급 재심사를 받자.</p>  
<p>시스템이니, 레벨업이니 해 봐야 믿어 주지도 않을 테고, 굳이 이쪽에서 먼저 밝혀야 할 이유도 없었다.</p>  
<p>재심사를 받기로 작정하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좀 더 강해지고 나서 랭크를 받고 싶었지만...'</p>  
<p>어디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되던가.</p>  
<p>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'등급은 얼마나 올라가려나?'</p>  
<p>강태식과 비등하게 싸우다 이겼으니 B급에서도 약간 높은 정도일까?</p>  
<p>꽤 강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, 역시 B에서 S로 이어지는 상급 헌터들은 강했다.</p>  
<p>'뭐, 뒷일은 나가서 생각하기로 하고.'</p>  
<p>이제 보스를 처치할 시간이었다.</p>  
<p>D급 수준의 마력 파동을 보이는 던전에서 E급 마수들 고블린만 나왔다.</p>  
<p>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마력 파동은 보스에게서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.</p>  
<p>그 정도 보스라면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.</p>  
<p>'하지만 그전에.'</p>  
<p>확인해 볼 게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감각을 극대화시켜 던전 내부의 기운을 샅샅이 훑었다.</p>  
<p>"찾았다."</p>  
<p>진우가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가는 도중 김상식의 시체와 다른 헌터의 시체도 발견했다.</p>  
<p>그게 상급 헌터의 힘이었다.</p>  
<p>상급 헌터가 마음만 먹으면 하급 헌터 몇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숨통을 끊어 놓을 수가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굳은 얼굴로 그들을 지나쳐갔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